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상록수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상록수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상록수

완성된 이름

상록수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나무, 대나무 따위가 있다.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상록수		
常綠樹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나무, 대나무 따위가 있다.

①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7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상록수'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나무, 대나무 따위가 있다.

☞ 상록수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상록수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상록수 사전 표기 요약	—	—	—	—	—	● →
常綠樹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상녹수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상록수
20세기현재
- 常綠樹
20세기

↳ 상록수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상록수’는 20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상록수’, ‘상녹수’나 한자로 표기된 ‘常綠樹’가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상록수’는 나뭇잎이 사철 내내 푸름을 뜻하는 ‘常綠’을 한글로 표기한 ‘상록’과 나무를 뜻하는 ‘樹’를 한글로 표기한 ‘수’가 결합한 것이다.

🔗 표기 방식과 특징

‘상녹수’는 ‘상록’을 소리 나는 대로 ‘상녹’으로 표기한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상록수’, ‘상녹수’ 중에서 ‘상록수’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상록수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常綠樹, 상록수, 상녹수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常綠樹, 상록수, 상녹수

출처 1924 동아일보 2월 10일 1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最南部에는 料, 椎 等の 常綠樹와 竹林 等도 있다.

현대어 풀이

최남부에는 후박나무, 참가시나무 등의 상록수와 죽림 등도 있다.

출처 1926 조선일보 2월15일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이것은 수목 중에서 가장 키가 적은 나무니 일본 고산(高山) 지방의 소산인 상록수(常綠水)라 합니다.

현대어 풀이

이것은 수목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나무이니 일본 고산 지방의 소산인 상록수라 합니다.

출처 1928 동아일보 12월15일 5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나무잎이 떨어져 살린 미티나 상록수(常綠樹)의 잎사귀 미테 가만히 엮들여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

나뭇잎이 떨어져 깔린 밑이나 상록수의 잎사귀 밑에 가만히 엮드려 있습니다.

출처 1935 조선일보 6월 23일 5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뜰에 소나무를 심어 상록수로 보려니까 병이 잘 들어 잎이 누러케 되는 때가 만습니다.

현대어 풀이

뜰에 소나무를 심어 상록수로 보려니까 병이 잘 들어 잎이 누렇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상록수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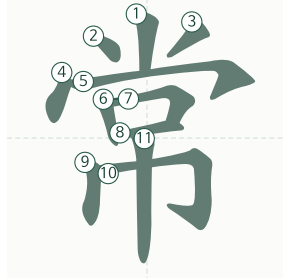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상록수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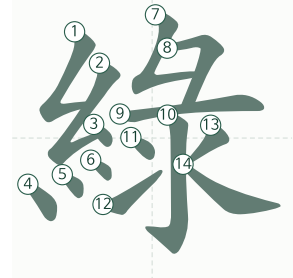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常 뜻·음 땃땃할 상
총 11획 · 부수 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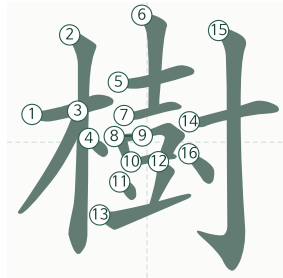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常/

綠 뜻·음 푸를 록
총 14획 · 부수 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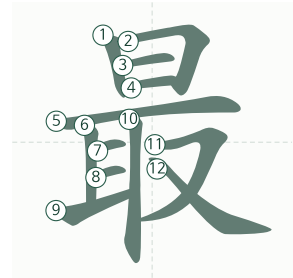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綠/

樹 뜻·음 나무 수
총 16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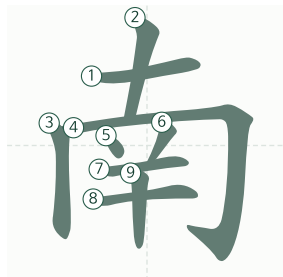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樹/

最 뜻·음 가장 최
총 12획 · 부수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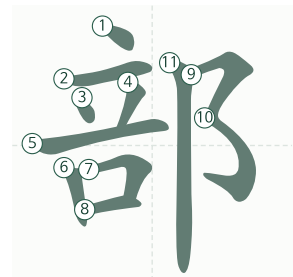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最/

南 뜻·음 남녘 남
총 9획 · 부수 十



hanja.wordrow.kr/한자/南/

部 뜻·음 떼 부
총 11획 · 부수 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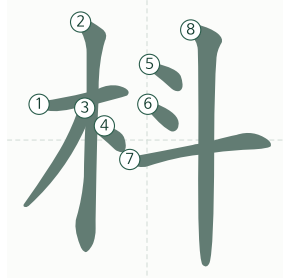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部/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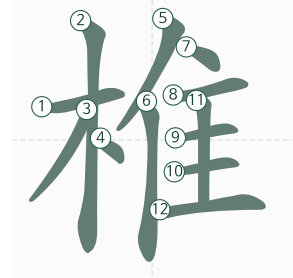
뜻·음 주두 두
총 8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料/

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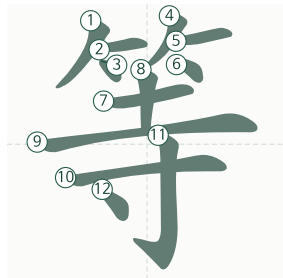
뜻·음 쇠몽치·등골 추
총 12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椎/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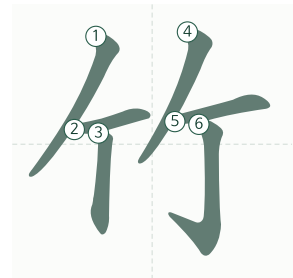
뜻·음 무리 등
총 12획 · 부수 竹



hanja.wordrow.kr/한자/等/

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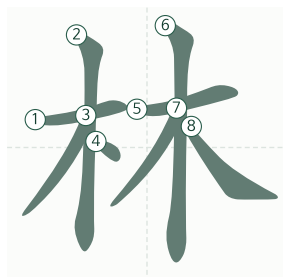
뜻·음 대죽
총 6획 · 부수 竹



hanja.wordrow.kr/한자/竹/

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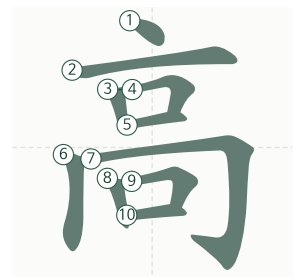
뜻·음 수풀 림
총 8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林/

高

뜻·음 높을 고
총 10획 · 부수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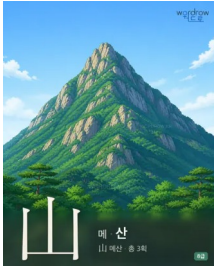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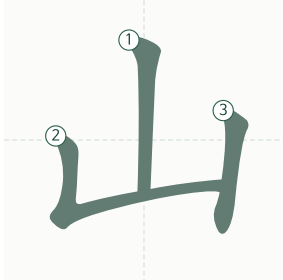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高/

한자 한눈에 보기

3 / 3 · 17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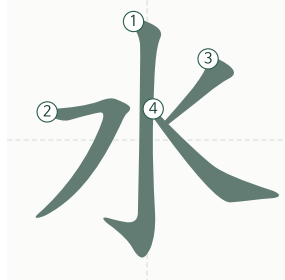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山 뜻·음 메 산
총 3획 · 부수 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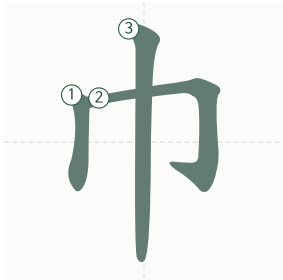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山/

水 뜻·음 물 수
총 4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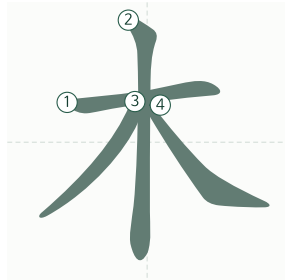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水/

巾 뜻·음 수건 건
총 3획 · 부수 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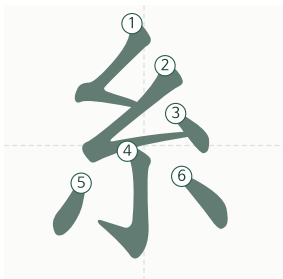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巾/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木/

糸 뜻·음 실 사 / 가는실 맥
총 6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糸/